



心實愛世
攝信慈度

본회는 동문상호간의 우의증진과 모교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을 전개한다.
(1976. 10. 15. 등록번호 라-2143호·월간·비매물)

東友會報

1986年(檀紀4319年) 7月 31日 第113號【1】

발행인 鄭在哲
편집인 申益炫
인쇄인 崔在旭

東國大學校同窓會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 3가 26
전화: 267-8568
274-7449

우편대체: 012328-31-525669
은행지로번호 75008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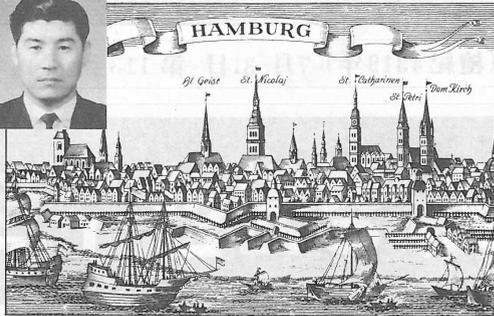
盛夏의 東國, 영원한 푸르름이여



모교 慶州캠퍼스 전경

“Made in Germany means quality, but some have PURE Quality!”

20余年 獨逸, 西歐羅巴에서
우리나라, 中東, 東南亞,
阿弗利加, 美國 等과
各種品目的 貿易去來,
技術諮問, 事業管理 等の
貴重한 經驗으로, 相互
協助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品質과 價格은 成功의
씨앗입니다.
願하시는 問議에 誠實히
報答하고 있습니다.



As you know, the german quality is one of the best in the world, but some have PURE Quality as we know.

Therefore we are working successfully in Foreign Trade, Technical Consulting and Project Management with many german products (as well as other european products), more than 20-Year-Experience, from the simplest machines to the sophisticated plants.

This includes full service and licence-transfer if necessary.

Are you interested in? Please do not hesitate to contact us, we will do our best!

CHOY KG

Henry Chan Key Choy
Presid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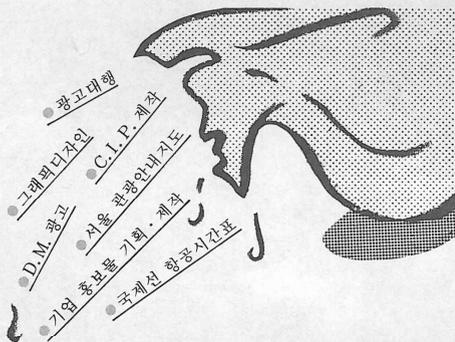
CHOY KG

Tel.: 4103032/33, 4106401, Telex: 21 1313 choy d
Bohmersweg 5, 2000 Hamburg 13, West Germany

(Ofcourse we also import your products)

社長 崔 贊 基 (法56)

붓물트기가 시작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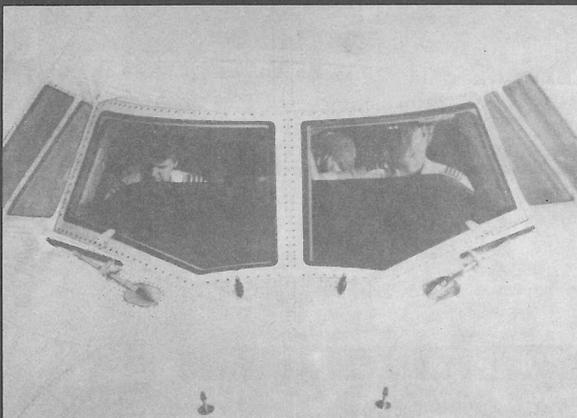
유니콤은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을 이끌기 위하여
축적해온 붓물을 드러합니다.

한방울 한방울 깊은 골짜기에서 흘러내리는 물을 모아두듯,
모든 경험과 깊은 안목으로 정성스레 피어온 붓물—
좀더 성숙하고, 좀더 살찌운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유니콤은 이제 조심스럽게 붓물 트기를
시작하였습니다.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이끌어야 하는지를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저동 2가 48-20호, 경구별당 502호 서울 중앙우체국 사서함 8935 전화: 274-7214 · 274-4080

시카고, 씨애틀, 로스앤젤레스 미국 3대도시로 논스톱항공편 운항



미국으로 여행하실때 노스웨스트 항공을 타시면 여러모로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첫째 노스웨스트 항공만이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그리고
씨애틀 등 미국의 3대 도시로의 논스톱편을 운항하고 있으며
도착 즉시 미국과 캐나다의 50개 도시로 곧바로 모셔
드리고 있습니다.
둘째 기내서비스와 요요에서도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즉, 한국인 여승무원의 친절함 서비스와 더불어 이코노미
요금으로 인계유티브 클래스 서비스를 드리고 있으며,
여행거리에 따라 무료여행의 혜택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번에도 미국여행은 편리한 노스웨스트 항공을 이용
하십시오. 가장 많은 혜택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3:00pm	10:00am	로스앤젤레스
1:45pm	12:15pm	시카고
4:15pm	10:00am	씨애틀
	4:00pm	뉴욕
11:50am	1:30pm	샌프란시스코
	9:00am	호놀룰루

예약은 가까운 여행사나 노스웨스트 오리엔트로 해 주십시오.
● 로스앤젤레스 (서울) 753-6106/9, 755-0416/7, 777-9786
● 워싱턴 (서울) 778-8540/1 ● 샌프란시스코 (서울) 775-7294/5
● 호놀룰루 (서울) 778-0181/7 ● 밴드포렌 (부산) (051) 44-2240

이제부터 노스웨스트 오리엔트입니다.



회비모아 同窓會館 건립하자

事務局 이전 계기로 會館건립 적극추진

- ◇... 그동안 모교학생회관에 있던 본회 사무국을 지난11일모교 후문앞 제일병원...◇
- ◇...뒷편의 「大起」빌딩 606호로 옮겼다. 본회에서는 이번 사무국 이전을 계기로 전통...◇
- ◇...국인의 역할과성원을 한데모아 동창회관 건립에 온 힘을 기울이기로 하였다. 東...◇
- ◇...國人的 요람이 될 同窓會館 건립에 동문 모두의 성원이 있길 기대한다. ...◇

柳周馨부회장 임대보증금회사



이번 본회 사무국 이전은 동국인의 요람이 될 同窓會館 건립을 위한 디딤돌로서, 본회에서는 이를 시작으로 동문회비를 적립하고 앞으로 회관건립 기금모금운동을 앞서는 등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사무국 이전을 위해 柳周馨(57농학·충남방직고등학교·사단) 등인이 5백여만원의 임대보증금을 회사하였으며, 본회에서는 86회계년도부터 건축운임을 통해 직접해운 동문회비 전액을 점차 同窓會館건립을 위한 기금으로 적립하기로 하였다.

본회 사무국 이전을 축하하는 선물을 보내온 동문은 다

을과 같다. (本회來訪10面)
 金定基 (48회전·북한문제연구소 상임위원·본회이사) 동문= 화일Box 1 점
 景영학과 동창회 (회장 白正基)·경영대학원 동창회 (회장 南奎) = 화일Box각 1 점

禹昌男 (67농학·株동명인쇄대표·문회이사) 동문=화일Box 1 점 및 커피집Set·크리스탈 컵Set 각 2 점
 尹成澤 (60사학·모교체육부장 본회이사) 동문=대형 축하화본
 李浹杓 (75정의·株코리아랩포리 대표이사·본회이사) = 대형 축하화본

慶州동창회 「만남의날」행사가져 현판식도, 장기자랑도 친목도모

慶州동창회 (회장=朴廣度·65 불교)에서는 지난12일 경주시 소재 「경주동창회관」에서 경주 동창회 현판식과 함께 동국인 만남의날 행사를 가졌다.

宣晉圭本회의 상임부회장, 南都泳경주대 부총장을 비롯 대구 김진, 포함동문의 임원및 경주 동창회 회원등 1백여명의 동문들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

는 현판식에 이어 타지구 참석동문들과 협의를 통해 10월 초순경에 「제 4회경남지역 동문 체육대회」를 개최하기로 결의하였다.

한편 이날 참석한 동문들은



仁川·독일동문회 定期總會 임원개선, 기금적립등 논의

(회장=崔慶植·56정치)에서는 인천 시소재 금학식당에서 金股夏명예회장, 金在澤교문등을 비롯한 1백30여명의 동문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갖고 신입 임원을 선출하는등 현안을 논의하였다.

이날 定總에서는 孟毅在전임회장의 회고에 따른 정기총회 지원등에 대한 경과보고에 이어 결산보고를 마치고 신입 임원을 선출하는등 회의순서를 마친후 여흥을 즐기며 우의를 다지기도 했다.

새로 선출된 임원명단은 다음과 같다.

▲ 명예회장=金股夏(52정치)
 ▲ 회장=崔慶植(56 정치) ▲ 부회장=洪性克(63 경영) 林承業(62법학) 秋炳福(63 영영) 趙炳浩(66 정의) ▲ 간사=申然復(64 법학) 金昌株(65정의)
 (회장=李濟)
 在 독일동문회: - 60(화학)에서는 지난 5월 31일과 6월 1일 양일간에 걸쳐 30여명의 회원과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 6차 정기총

회와 가족동반 아우회를 갖고 기금적립등 현안을 토의했다.

金吾雨(76경영) 동문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총회에서는 신입회원 소개와 경과보고에 이어 주소를 보인, 본회의 모교 해외유학 담당기관과의 건립한 유대, 동문상조기금 증액및 효율적 사용방안등의 사업계획에 관한 토의가 있었다.



본회사무국 이전 그동안 모교 학생회관에 있던 본회 사무국이 장차 同窓會館 건립을 위한 첫발을 딛기 위해 사무실을 이전했다. 이전한 사무실의 위치는 모교 후문 앞 제일병원 뒷편 「大起」 빌딩 606호이며 전학번호의 주소는 종전대로 사용한다.

회의순서를 마친후 장기자랑과 현운상품 추첨등 여흥을 즐기며 친목을 다지기도 했다.

政外科 이사회 장학기금등 논의

政外科동창회 (회장=王豹淳·55정치)에서는 지난 6월13일시

그동안 본회 학생회관에 있던 본회 사무국이 장차 同窓會館 건립을 위한 첫발을 딛기 위해 사무실을 이전했다. 이전한 사무실의 위치는 모교 후문 앞 제일병원 뒷편 「大起」 빌딩 606호이며 전학번호의 주소는 종전대로 사용한다.

내 대입정에서 이사회를 갖고 장학기금 조성과 정기총회에 관한 사항등을 토의했다.

한편 이자리에서는 王豹淳과 金부회장이 각각 50만원과 1백만원씩을 장학금으로 회사하기도 하였다.

城北동문회 창립 1주년자축회

성북동문회 (회장=金光鎬·69 경영)에서는 지난11일 오후 7시 울림피아호텔에서 同窓會의 창립 1주년 자축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金光鎬회장, 金承一(63정치)사무국장을 비롯 20여명의 동문부부가 참석하여 창립 1주년을 자축하고 회담전을 다짐하였다.

연영과 아우회 「조신의꿈」자축도

연영과 동문회 (회장=金興雨·64연영)에서는 지난19일부터 20일까지 양일간 청평 산회소립지주 상회빌딩에서 6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아우회를 가졌다.

개교80주년 기념공연 「조신의꿈」자축연과 李成雄빌런드협회 회장괴선 축하를 겸한 이날모임에는 60여명의 회원들이 가족동반으로 참석, 체육대회와장기자랑등을통해 결속을 다졌다.

양담배를 피우지 마십시오

東友漫評 鄭雲耕



“會館건립 밀거름으로..”

「六六東正會」창립 총회 가져 66년입학동기모임, 회칙등 마련

66년도 정치외교학과 입학동기들의 모임인 「66東政會」가 지난 6월26일 시내 「장원」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정식으로 발족했다.

그동안 수차의 준비무역을 가진 同會는 66년 정치외교 입학생은 물론 66년부터 70년까지 1년이상 재학한 사람은 모두 회원으로 인정하기로 하고 매월 정례모임을 갖기로 하는등 회칙을 마련하고 임원선임을하

였다.

한편 이날 모임은 신일산업 (株)영업이사로 영진한 朴文學 동문의 축하연도 겸하였으며 회원수집과 기념타올을 나누어 갖기도 하였다. 연락처 (273-3172)

同會의 임원명단은 다음과 같다.

▲ 회장=吳師根(대진고등학교 교사) ▲ 부회장=秦圭燮(신원양행 대표) ▲ 총무=金恒植(일성특수고무공업사대표)

아이디어를 주십시오

「東友會報」를 改題하고자 합니다

동문 여러분의 대화와 우의의 광장으로서, 동창회 발전의 편달자로서 지대한 기여를 해온 「東友會報」가 이제 보다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기위해 제호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많은 성원있으시길 기대하며, 「東國大同窓會報」 「東國大同窓月刊」 등을 비롯 제호에 대한 더 나은 의견이 제시 동문들의 제언을 부탁드립니다.

東國大學校 同窓會 事務局
 (267)8568(274)7449

◇ 동문추천

화진포(강원도)



朴大赫 (63년생)

●위치: 강원도 고성군 속초에서 40km지점.
 ●특징: 군사지역인 까닭에 매년 7월10일부터 8월20일까지 단개장, 백사장이 약 1km에 걸쳐 펼쳐있고, 폭도 55~80m정도 수심은 대단히 깨끗하다.
 또한 백사장과 인접해, 화진포호수가 있어 한결 아늑한 느낌을 준다. 바다앞쪽 4백m지점에는 기암괴석과 숲이 우거진 거북섬이 있는데 피서철에는 개방된다. 이섬 정상에서 맑은 날씨면 금강산을 볼수있다.
 ●교통: 진부림을 거치는것과 강릉을 거치는 길이 있다. 삼봉터미널에서 직행버스로 5시간정도, 강릉-화진포간 버스도 20분간격으로 있으며, 속초에서는 시내버스가 10분간격으로 있다. 택시는 속초에서 6~7천원 정도.
 ●숙식: 해수욕장 입장료는 없다. 여관이나 여인숙은 2km정도 떨어진 대진을 이용해야 한다. 밥갈 곳이 많고, 민박도 가능하다. 야영시에는 청소비로 소할 5백원, 대할 7백원을 지불해야한다. <(株)동정대표>

「여름휴가」... 가볼만한 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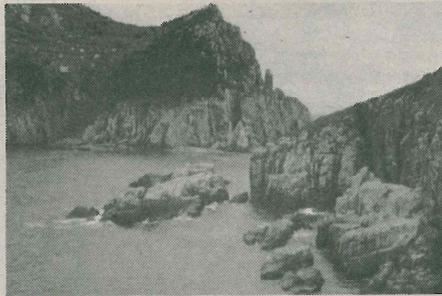
- ◇... 본격 휴가시즌을 맞이하여 본사무국에서는 동문들에게 보다 인락하고 보
- ◇... 랍한 휴가를 보낼수 있도록 하기위해 이번 특집을 마련했다. 동문들의 추
- ◇... 전과, 본사무국의 자체조사를 통해, 저렴한 경비로 최고의 휴가를 즐길수
- ◇... 있는 썩곳을 엄정선정하여 추천한다.

목 줄기로 삼국시대의 남북통로였던 관계로 부근에 유적이 많다. 주봉일대는 거대한 암벽으로 등산가들이 많이 물린다.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도로망이 잘 발달되어 있고, 여러 등산코스가 개발되어 있다.
 한편 월악산을 끼고 있는 송계계곡은 계곡 길이가 약 4km정도로, 물이 맑고, 돌이 많아 수석채집 장소로도 적당하다.

한편 수안보 주변에서의 온천욕과 산림욕은 건강에 더없는 도움을 준다.
 ●교통: 동마장터미널에서, 충주 또는 수안보행 고속직행버스가 수시로 있을, 충주 또는 수안보에서 송계리나 미륵리행으로 갈아타면 된다.
 ●숙식: 미륵리 송계리에 음식점과 민박촌이 많다. 인심이 후한편이고, 산채·타백숙이 일품. 들르는길에 수안보에서 온천과 숙박도 편찮다.

현리(경기도)

곳으로, 한적한 곳을 좋아하는 동문들에게는 최적, 등산의 묘미와, 계곡의 시원함을 함께 느낄수 있다.
 또한 계곡물이 얇아 아이들이 놀기 편하고 안전하여 가족 야영장으로도 적당하다.
 ●교통: 상봉터미널에서 현리행 버스가 수시로 있다.
 ●숙식: 현리에서 여관및 식당, 민박이 가능, 야영도 가능하다. <풍년대표>



얼음계곡(경남)



金光鎬 (69년생)

●위치: 경기도 가평군
 ●특징: 주위 산세가 아름답다. 경기의 금강이라 불리우기도 한다. 그리잘알려지지 않은

●위치: 경남 밀양군 남평리 구연부락

머위와 함께 여름이 사라진다. 하늘 닿는 데까지 돌밭이 절묘하게 쌓여 산을 이루고 있는데 여름이 박혀있다. 가파른 폭포물은 물이랑기 보다는 여름 그자체이다.
 청량산을 넘어면 표층사라는 유명한 절도 있어 몸과 함께 마음도 청정하게 할수 있다.
 ●교통: 밀양까지의 여러 교통편이 있다. 밀양-남평리 직행이 40분소요 밀양에서 얼음 끝까지 직행도 있다.

●육락: 구연부락에서 민박가능, 여관도 1곳이 있고, 염소구이가 별미.
 <조원식대표>

◇ 본회추천

추암해수욕장(강원)

●위치: 강원도 삼척군북평읍
 ●특징: 백사장 길이가 약 1km로, 작은 여촌이 바로 백사장 뒤에 잇대어 자리잡아 집마당에서 바다와 바다 보이는곳. 백사장과 함께 추암의 기암절벽, 해안절벽과 동굴, 칼바위, 썰매바위 등이 백사장과 함께 절경을 이루고 있다.
 해수욕과 함께 바다낚시의장뿐만 수컷도 즐길수있는곳.
 ●교통: 서울-삼척간 고속버스가 수시로 있고, 서울-강릉간기차를 타고 북평에서 하차, 교통편은 대단히 편리하다.
 ●숙식: 인심이 살아있는 벗안남은 마을의 하나. 피서철이 아닐때라도 많은 사람들이 들르는곳. 삼척에 속소를 정해야 한다. 여관과 밥갈곳이 이곳에는 없고, 민박과 야영난 가능하다.

상주해수욕장(경남)

●위치: 경남 남해군 상주리
 ●특징: 백사장 길이가 2km에 폭 1백50m의 해안가와 1백년 이상된 松林이 우거져 있다. 한리수도 청정해역에 속해있으므로 바다물은 더없이 맑고 깨끗하다. 남해고속도로에서 이어지는 드라이브코스가 아름답고, 일출광경으로 유명한 금산이 해수욕장에서 1km떨어져 있다.
 한편 낚시하기 가능한곳으로 여러척의 배가 준비 되어있다.
 ●교통: 서울에서진주까지와서 상주행버스를 타거나, 여수에서 배를 타고 직접 상주해수욕장으로 가는 코스가 있다. 부산에서도 배와 버스가 있다. 뭍수있는한 여수에서 배를 타는것이 좋다.
 ●숙박: 입장료 무료, 여관 3동이 있고, 민박과 야영이 가능, 청소비가 5백원이다.

월악산(충북)



權奇悰 (64년생)

●위치: 충북 제천시 한수면
 ●특징: 소백산맥의 중부 내

●위치: 경기도 가평군
 ●특징: 주위 산세가 아름답다. 경기의 금강이라 불리우기도 한다. 그리잘알려지지 않은



梁正五 (61년생)

●위치: 경남 밀양군 남평리 구연부락

알려 드립니다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동문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본회 사무국에서는 동문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점차 우리 東國人的 사랑방이 될 同窓會館 건립을 위한 디딤돌이 되는 사무국 이전을 마쳤습니다.
 또한 본회에서는 사무국 건축운영을 통한 예산절감과 함께 동문회비를 전적으로 회라 건립기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동문여러분의 회비가 모여 회관건립을위한 기금이 되고 또 모교 구매물품 위한 장학금으로 쓰이게 되는만큼 동문 여러분의 보다 적극적인 회비납부를 부탁드립니다.

會報는 여러분의 것입니다

동문여러분의 우의와 친목의 장으로서, 동국대학에 지대한 기여를 해온 「東友會報」가 이제 매월刊行되게를 단행하여 여러분을 찾고 있습니다. 동문 여러분께서는 본인의 근황이나 주위동문들의 소식등을 사무국으로 연

락해 주시면 회보에 게재하여 널리 알리도록 하겠읍니다. 동문여러분께서 알려주시는 주소 변경등 소식이 회보반송으로 인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있읍니다. 東友會報는 여러분의 것입니다.

알려 드립니다

알려드립니다. 그간 사회각계각층에서 많은 활약을 하며 東國의 긍지를 드높이고 있는 동문들에게 동문임을 사칭, 책이나 기타 물건들을 강매하는 일들이 종종 있어 많은 동문들이 이러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동문여러분께서는 앞으로 이러한 피해를 입지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마전 모신사 출판부에서 동문 [시례] 임을 사칭하고 다니며 동문들에게 책을 강매하고 다닌 일이 있어 본보「동동동」란을 빌어 동문여러분께 알려드린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또 이와 유사한 저열한 방법으로 동문들에게 책을 강매하는 등의 피해사태가 있어 동문여러분들께 알려드립니다.

유한양행에 근무하는 金仁洙(83경석·유한양행동우회 총무) 동문에게 동문임을 자처하는 동문(?)이 책을 사주기를 부탁, 김동문은 이 이력을 믿고 책을 구입하자, 이사람은 그 후 다른 동문들을 찾아다니며 金仁洙동문의 소개로 왔다면서 책을 강매하고 다닌 일이 있습니다. 특히 본회 申益煥사무국장의 소개로 왔으며 책이나 기타 물건들을 강매하고 다니는 사례가 종종 있었으며 이밖에도 모교 역경이나 서점보스님들의 이름을 팔고다니는 등 동문들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회에서는 이러한 일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항상 확인절차를 거친후에 동문들의 신상문비에 응답하고 있는등 주의를 거듭하고 있으나, 이들은 본회 입원수첩을 비롯, 각 회의 수첩등 동문들의 명단을 입수하는대로 이를 이용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습니다. 동문여러분께서는 다시는 이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며 이러한 경우를 보시는데로 사무국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東國大學校 同窓會 事務局



「생일찾아주기」등 가족적인 분위기 83년결성,짧은 연혁에도 최고의 모범지회로

인 분위기의 모임을 갖고있다. 지난 6월에는 정기총회를 갖고 申興均회장에 이어 李廷周 회장을 선임회장에 추대하고 회발전을 위한 논의를 한결같이 기금적립에 주력하여 일정액의 기금이 마련되는대로 우선 同會의 회원자녀들의 학자금을 보조해주기로 하면서 이를 더

때마다 적극적으로 모교의 후배들을 추천하여 일사치기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후배들도 학교생활에서 더 많은 실력을 쌓고, 모교측에서는 더 많은 홍보를 통해 교세를 신장시키는 데 힘써야 할 것」이라며 입을 모은다. 가족적인 분위기의 동문회 모

임에 참석하고 난후부터는 신입 동문들도 사내에서 단순한 직장상사가 아닌 선호배간의 관계로 대하게 되어, 공적인 어려운 문제도 손쉽게 해결할수 있는등 단합된 모습을 자랑하고 있는 同會에서는 앞으로는 연말모임을 부부동반 모임으로 계획하는 한편 가족동반 야유회를 계획하는 등 더욱 결속된 모습을 다짐하기도. <朴>



목 확대시켜 모교이 후배들에게 장학혜택을 주도록 할것을 결의하기도.

1천3백여명의 사원을 거느리고 연간 매출액 7백억원규모의 제약업계 선두주자인 유한양행에는 타대학의 동문회도 구성되어있으나 모듬면에서 비교가 되지않을 정도로 東友會의 활약이 두드러지며, 사내의 모든 요직에 관공부 동문들이 포진해있어 東國인으로서의 긍지를 드높이고있다.

同會에서는 장차 계획하고 있는 후배들에 대한 장학혜택의 예도 유한양행의 신입사원모집

손꼽히는 진실한 제약회사에서 가장 진실한 동문회를 운영해 오고있는 유한양행 농우회(회장=李廷周·66사학·채권관리과장).

83년에 정식으로 창립된이래 현재36명의 회원들이 토포론펠처우의와 친목을 다지며 同會의 장을 나누고 있다. 그동안 지면있는 동문들끼리 간단히 모이다 83년, 申興均현고문을 비롯 李廷周, 金正浩, 申潤, 任澤鎬, 金仁洙, 申潤, 金仁洙, 申潤 등이 주축이 되어 동우회를 결성시키고, 동문들의 소재 파악에나서 현재의 동우회를 가꾸어왔다.

同會는 짧은 연혁에도 불구하고 매년 두차례의 정기모임과 회원들의 경포사가 있을때마다 빠짐없이 모이는 열성을 보이는등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결속된 힘을 과시하며 본회발전에 크게 활약해온 모범지회로 정평이 나있다.

특히 同會에서는 회원들의 생일찾아주기 사업을 통해 회원들의 생일마다 대다수의 회원이 참석하여 축하와 함께 우의를 다지는 그야말로 가족적

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특히 同會에서는 회원들의 생일찾아주기 사업을 통해 회원들의 생일마다 대다수의 회원이 참석하여 축하와 함께 우의를 다지는 그야말로 가족적



申興均고문, 李廷周회장, 任澤鎬부회장, 金仁洙주무, 車重根주무, 李禹勳주무

- ◇회원명단
- ▲고문=申興均(62경제·상부)
 - ▲회장=李廷周(66사학·채권관리과 1급과장)
 - ▲부회장=任澤鎬(73통계·술론과 2급과장)
 - ▲총무=金仁洙(83경성·內資과 4급)
 - ▲張吉錫(66법학)=부산지점 2급과장 ▲車重根(68삼학)=기획실 2급과장 ▲金勝男(70경

會費를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1년에 1만원...회보제작·장학기금·사무국운영에요긴

(단위: 만원)

▲유병관(60정치)=	▲이선욱(85플리)=1	▲황성열(78경제)=
▲이창억(52정치)=	▲이광영(65경제)=	▲심갑식(62경제)=
▲윤태령(76행정)=	▲윤태령(76행정)=	▲이무림(82경원)=
▲인정희(81법학)=	▲선정현(60법학)=	▲이순호(66화학)=1
▲이난숙(85경원)=1	▲이호진(79경원)=	▲조태용(81경원)=
▲문영일(58정치)=	▲유기동(68경제)=3	▲김용구(74통계)=3
▲배영민(72시공)=	▲허수환(63정치)=	▲전병덕(60법학)=1
▲이우동(84경원)=	▲이종택(83회계)=	▲김정의(67경원)=
▲장수광(65화학)=	▲안준봉(60법학)=	▲박철삼(60경원)=
▲김상배(86농학)=	▲이정훈(64법학)=	▲이재민(86국문)=
▲민학기(82경원)=2	▲이준희(82경원)=	▲김호영(60법학)=
▲신종현(84국문)=	▲안호찬(80행정)=	▲김수일(71경제)=
▲김신철(62법학)=	▲권이준(61경제)=	▲김관문(85통계)=
▲안호찬(80행정)=	▲박승호(77경원)=	▲구병문(70삼학)=1
▲김승유(67정치)=	▲김문선(83경원)=	▲이종호(66삼학)=
▲홍성표(71토목)=	▲김관진(71법학)=	▲류수택(67경원)=
▲박종재(59경제)=	▲구재복(68삼학)=	▲안병원(64화학)=
▲이희일(63정치)=	▲박준기(82경원)=	◇광고료
▲박진희(58경제)=	▲강정숙(86시공)=	▲회보 111호광고료=
▲이호만(64정치)=	▲이영선(64삼학)=	12
▲전순수(57농학)=	▲도상일(58수화)=	▲" 112호광고료=
▲김종일(58법학)=	▲조용영(74정치)=	44
▲하진수(65정치)=	▲이서형(71철학)=2	▲김경수(63법학)=
▲백정기(64경원)=		
▲최광춘(62입학)=		

동국인의 집

보고스튜디오

- V. T. R 및 8mm 소형영화 제작보급
- 상업사진·카타록·앨범 기획제작
- 약혼, 결혼, 여권, 비자, 각종행사 촬영
- 출장 촬영현영
- 동국인 특별우대

대표 李光順 (경원출)

종로구 청진동 88번지
전화: 732-6934

「몬트리올 올림픽...」기념연설어

崔載九 명예회장



崔載九 (52 국문·국민당국회의원) 본회 명예회장이 지난25

일 저녁 롯데호텔에서 몬트리올 올림픽 참가 10주년 기념연을 개최했다.

崔 명예회장은 몬트리올 올림픽 때 한국선수단 단장자격으로 참가하여, 해방후 최초로 금메달을 획득하는 성과를 올렸으며, 체육인 최고의 훈장인 체육훈장 맹호장을 수상 하기도 하였다.

이날 위편연에는 참가선수들 외에 李萬興국민당총재등 정계 인사들도 다수 참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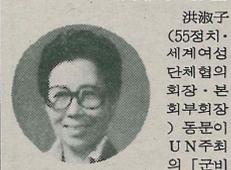
정부특사로 아프리카에 鄭寬溶 동문



鄭寬溶 (58법학·총무처 장관·본회부회장)이 지난달 23일부터 대통령 특사자격으로 아프리카제국을 순방하고 15일 귀국했다.

이번 순방에서 鄭동문은 모리타니아, 가봉, 니제르등을 방문하여 방문국 지도자들과 회담을 갖고 비동맹외의등 국제협력에서 한국의 입장을 적극 지지하기로 합의하는등 양국간 재한협력강화방안에 대해 협의하였다. 한편 鄭동문은 23년간 총무처에서 근무하면서 요직을 두루거친 정통 직업관료로 지난해 내각개편때 총무처장관에 발탁되었다.

「군비축소회의」 참가 洪淑子 동문



洪淑子 (55정치·세계여성단체협의회 회장·본회부회장) 동문이 UN주회의「군비축소회의」에 참석하고 지난23일 귀국.

洪동문은 UN주회 회의 참석후 노르웨이를 비롯하여 北歐지역 미국의 여성단체들을 돌아보고 민주주의 대담론을보냈던 페라로에사와 여성운동가 스타이너에사를 만나 한국방문을 초청속낙을 받았다.

한편 洪동문은 의과관 출신으로, 한국여성단체회장과 소비자단체회장을 맡고 있으며 지난 4월에는 세계여성단체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되는등 각계에서 맹활약을 보이고 있다.

세계불교학술회의 참가 李載昌 동문



李載昌 (57불교·모교교수·모교 불교문화연구원 원장) 동문은 대만 대륙에서 열린 제 5회 세계불교교육학술회의에 참가 하였다.

지난 12일부터 열린 이 학술회의에서 李동문은 「한국의 불교교육」이라는 주제의 논문을 발표했다.

이번 학회에는 한국을 비롯하여 대만·일본·태국·미국·서독·벨기에등 8개국 불교학

자 36명이 참가해 「불교의 고등교육」을 주제로 토론을 벌였다.

한편 李동문은 나라인화장으로 부터 제 9차 국제불교학술회의를 모교에서 개최해 달라는 제의를 받았다.

美방위군 명예중령에 金東英 동문



金東英 (60정치·신민당 원내총무·본회부회장) 동문이 지난 1월 1일 앨라배마주 방위군 명예중령에 임명되었다.

앨라배마주와의 유대 강화에 기여한 공로로 조지 웰레스주지사로부터 명예중령에 임명된 것으로, 임명장은 세계순복음교회 감독인 탈린 필드목사에 의해 전달됐다.

한편 웰레스주지사는 필드목사를 통해 李동문의 방미초청의 뜻을 함께 전했다.

「불교지도자 수련」 개최 사完一 동문



사完一 (61불교·전국신도회회장·본회부회장) 동문이 지난 25일부터 3일간 전국 불교지도자 하계수련대회를 가졌다.

인선 송도호텔에서 실시한 이번 수련대회는 불교지도자들의 자질향상을 도모하기위해 실시한 것이다.

이날 연사로는 徐漢澤(모교인文哲교수), 成岩度(포교원장) 등이 초청되어 강연을 하였다.

유니버시티호텔 吳昌均 동문



吳昌均 (61사학·유니버시티호텔 배화점 회장·본회상무이사) 동문이 8월 중순 유니버시티호텔을 개관한다.

기존 유니버시티배화점 옆에 세워지는 호텔로서 배화점과함께 江東의 명물이 될것이다.

특히 모교의 상징인 白像을 회사시블로 하여 배화점앞에는 거대한 코기리상을 세워 오는 사람의 눈길을 끌고있다.

한편 吳동문은 특신사 불교신사로서, 서울시 불교신도회 부회장, 江東라이온스클럽 초대회장, 반공연맹 강동지부장, 참일진흥기업대표이사직을 맡아 뛰

어난 활등을 보이는 자랑스런 동문이다.

추진 우체국장으로 朴在旭 동문

朴在旭(60정치) 동문이 강원 체신청관리국장에서 추진우체국장으로 영전했다.

朴동문은 81년 체신부회계국장시절 전기통신공사법리에 따른 전기공사업 초안을 작성했으며, 자산이관직업을 성공적으로 마친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한편 79년 전기체신총무과 재직시에는 전국최초로 여자직 배임제도를 도입, 이목을 끌기도 했으며, 83년 삼척우체국장 84년 강원체신청관리국장을거친 업무로 빈틈없이 추진하며 권위를 앞세우지 않는 상인으로 소문났다.

유안양행 상무로 申興均 동문



申興均(62경제·유안양행 상무로) 동문이 지난달 11일 유안양행 상무로 영전했다.

李 동문은 모교졸업후 63년 1월 유안양행 공채 1기로入社한후 23년간 출



근 영업부서에서 활동해온 베테랑으로, 계약업체에서는「영업활동의 귀재」라 불리며, 대우, 진주, 부산지점장, 영업관리부장, 영업부장등을 역임한바있다.

한편 李동문은 유안양행내의 동문들로 구성된 유안양동우회장직을 맡아 동문들간의 우애증진에 노력해왔고, 지금은 阿窓會고문으로 있다.

동창회 적극지원 다짐 徐錫九 동문



徐錫九(63법학·고려화학 전무이사) 동문이 최근 본회 사무국장을 만나 동창회에 대해대적 극적인 지원을 할것을 약속하였다.

徐동문은 69년 11월 금강스텍(주)에 입사하여 고려화학이사로, 감사·상무이사를 역임하고 지난해부터 고려화학전무이사로 재직중에 있다.

또한 지역사회발전에 도 남다른 관심을 기울여 대구청년회의소회장, 한국청년회의소 연수연구수, 경북지리청년회의소회장을 맡아 활동하였다.

「二水장학재단」 설립 金翰周 동문



金翰周(73재원·경기 대학 총장·본회이사) 동문이 지난 4월 二水장학 재단을 설립했다.

二水장학재단은 在京永川출신 인사들이 설립한 장학재단으로서, 매년 중·고등학생 1백여명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고, 교수들에게도 연구비를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金동문은 모교대학원을 졸업한후, 경남대학교, 모교법정대학교수겸총무처장, 대한외원경제회이사장등을 역임하고, 현재 경기대학교 총장에 재직중이다.

「코리아 템퍼러리」 설립 李浚杓 동문



李浚杓(75정치·코리아템퍼러리 대표·본회이사) 동문이 지난달 28일 주식회사 코리아 템퍼러리 를 설립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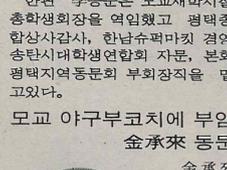
기업에 일시적으로 부족한인력을 제공하는 단기 전문인력 파견 산업으로서 우리나라에서 처음생긴 업체이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30년전부터 이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수도경리·외계·통역·키친치·프로그래밍·관광 가이드·비서지·무적지·의료직 등 20여분야의 전문인력을 등용사원으로 채용하여 기업의부정기적인 업무나 갑작스런 업

태변동에 메워줄 예정이다.

한편 李동문은 모교재학시절 총학생회장을 역임했고 병택중합상사감사, 한남슈퍼마켓 경영총관리대학생연합회 자문, 본회 병택지역동문회 부회장직을 맡고있다.

모교 야구부코치에 부임 金承來 동문



金承來(82체육) 동문이 지난 1일 모교 야구부 코치에 임명되었다.

金동문은 투수 출신으로, 모교의 취약점으로 지적되어왔던 투수훈련에 적극적인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金동문은 군산상고 모교를 거쳐 설립된 한국청년회에서 출판 투수생활을 해왔으며, 지면관계를 경찰계 승진, 결혼, 부흥, 이전개업등의 기사는 다음호에 게재하겠습디다.

그리고 허비를 대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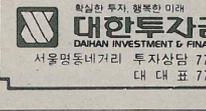
최고년 13.53%의 수익률 보장!

CP는 가장 높은 수익을 보장합니다.

금액·1,000만원 이상 만기·90일 이상

대한투자금융

서울명동네거리 투자상담 777-4491 대 대 771-06



며, 83년불철십일임리그에서는 우수투수상을 수상하는등 여러차례의 수상경력을 가진 능력있는 선수로 알려져있다.



〈서울신탁은행〉

▲尹興燮(64경영) =시소문자점 차장에서 동춘동 간이예금취급소장으로 승진

▲金文浩(65법학) =검사부서서 회합동지점 차장으로

▲崔成鎭(69영문) =영등포지점 차장

▲朴亨燮(60영문) =제주지점 차장

▲高賢湖(60경제) =제주지점 차장

〈이상 3급에서 2급으로〉

▲李朝久(72경영) =총무 4가지점 대리에서 다동지점 차장으로

▲李紀永(67사학) =총무로 1가지점 대리에서 역촌동지점 차장으로

▲洪漢均(68경제) =부산 부전동지점 대리에서 부산남지점 차장으로 <申東稜동문계보>

▲南時贊(58정치) =최근 영등포세무서장에서 국제선 재산세과장으로

▲左京熙(69사공·본회이사) =최근 제주은행 공합지점장에서 제주은행 서울지점 차장으로

▲朴世顯(62법학) =최근 부산시의전화국 민원봉사실 회선과장에서 한국청년회총공사 부산시 아마전선전화국 영업부수요조사과장으로

▲閔丙進(62정치) =지난 1일 한국관광국의 부회장에서 프라자호텔 사무이사겸 총지배인으로 영전

▲李宗洙(67사학) =최근 제일은행 남원지점차장에서 국제부차장으로

▲吳俊昌(67경제) =울림피치원단에 파견

▲李勝男(67사공) =최근 기린식점에서 영동기린백화점으로

▲曺吉成(67경제) =최근 미국방비성으로 부터 근무공모훈장을 수여받음

▲梁正五(81행정·조선석유대표·본회상무이사) =지난 1일 한전유화공업 전무이사에서 조원석유(주) 대표이사로 취임

▲金東協(71경제) =최근 신용보증기금 심사부 심사역에서 반월공단출장소 차장으로

▲李建永(70총무·본회이사) =최근 신용보증기금 경영지도부 파견에서 안양지점 차장으로

▲安忠根(72연교) =최근 영신상호신용금고 영업부장에서영남본부장으로

▲許熙(72경제) =최근 주택은행 예산관리부에서 감사실 과장으로

만딸모교친학 "선배님 용돈좀주소," 英文科 최고미인 빼앗아갔다고 몰매 맞을뻔

새주소를 알려주세요

※다음은 본회가 파악한 새주소입니다. 아직도 會報를 받아보지 못하시는 동문께서는 사무국으로 연락을 주시면 곧 보내드리겠습니다.



<24>

夫婦 동문

◇李 成 雄

(64 연영·델린트협회 회장·KBS텔런트)

◇田 廣 美

(65 연문)

놓고나서李동문이 꺼낸 첫마디가『당신과결혼하겠다』고 배경 좋게 말하자 놀란田동문이 달아나듯 일어서 가는 뒷모습을 향해『다음날 명동케익센터에서 기다리겠다』는 일방적인 약속을 해놓고선 약속장소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결국 약속시간 50분이 지나서 친구와함께田동문이 나타남으로써 두사람의 사랑은 불이불기 시작했단다.

연영과의 동거들이 하도 짝긋서 틀레 데이트를 즐기기 위해 주로 학교가 아닌 시내 다방등에서 만나 데이트를 즐기곤 했는데, 한 3년쯤 지난뒤에田동문이 자주 멀리하는 것

시고 약속을 하게되고, 급속도로 진전이 되었는데 이때에도 역시李동문의 배짱이 효과를 발휘(?)결혼에 끝인하게 되었다.

『장인께서 무척 술을 좋아하시는 분이예요. 저는 술을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하루는 처남이 찾아와서는 술을 한잔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처남이 안내하는대로 근처 술집으로가 함께 마신술이 4홉들이 소주 8병이나 되었다. 처남은 취해 쓰러지고李동문도 신을 신지 못할 정도로 취했다고.

나중에 안 이야기지만 그때李동문 모르게 뒤에서 지켜보



같아『내심 놀릴까봐 불안하기도 하고 이래선 안되겠다』싶어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나오는데田廣美를 만나기위해 수위실에 앉아 기다리고 있는데田동문이 공부를 마치고는吳國根 교수님과 함께 내려오더라.

『그래吳국근님께 양해를 구하자 웃으면서 선선히 자리를 비켜 주시더군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시아가 교수님들께 알려지게 되었죠』

그리고는 함께 다방으로가서『내가 그렇게 싫으면 헤어지자』하며 얘기를 꺼냈단다. 그러나 그도 잠시일뿐 '언제 그렇게 심했겠느냐는 듯이 웃으면서 이야기만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마무리되고 사람은 더욱더 무르익었다고

소주 8병에 결혼승락

65년李동문이 TBC에 입사한후 양가 부모님께서 만나

고 있던 장인께서『남자가 저 정도 배짱이 있으면 뭘해도성공일 것』이라며 사위로 삼을 것을 결정했다고 한다.

부부싸움...갈로 올베기

대부분의 부부동문들이『부부싸움 한번 못해본게 흠』이라고 하지만李·田동문부부는 꽤 자주 싸움을 했단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싸움이 자국이 되어 보다 발전적으로 사랑을 지속시킬 수 있었다며 부부싸움 한것을 자랑(?)한다.

가족관계에 대해『딸이 하나, 여자가 하나, 계집애가 하나』라는李동문은『본인 본인의 대로 장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생각했었는데 딸을 낳았을『재수물에서라도 아바·엄마의 학교, 그중에도 연영과에 진학하겠다』고 하더니 올해 모교 연영과에 입학해 해 이제는『동국인

- ▲白洪鍾 (49 문학) =경기도 남양주군 미금읍 금곡리 700-25 라이프이 연립주택201호
- ▲李洪宰 (57 정치) =문공부 문화재관리국공원관리과장(725) 2931
- ▲朴熙燾 (64 법학) =성북구 장위 3동 25-79 신린당총남4지구관 (금산·대덕·연기문) 위원장 (915)0419
- ▲朴贊明 (66행정) =중구 서소문동120-19 청송출
- ▲姜泰順 (68식공) =강남구 청담동132-19 대우 B D 3층 수원농산(주)이사 (542)1811
- ▲김무준 (72경영) =문공부 문화재관리국 관리과 (725)5281
- ▲朴相顯 (74법고) =문공부 문화재관리국 전문위원실
- ▲盧允相 (74경영) =강동구 길동99-2 한지건설 (484)3859
- ▲金浩浩 (80행정) =강동구 덕동 220 삼익그린12차 102동 705호 (474) 2581
- ▲李光順 (경원) =종로구 청진동 88 보교스튜디오 대표(732) 6934
- ▲金益培 (86무역) =코리야제독스 중앙관내부 영업과
- ▲李世鉉 (86전산) =동대문구 망우동 524-29
- ▲李哲雨 (86전산) =강남구서초동1318-2 신용보증기금 강남지점 (553) 4577
- ▲배경문 (67철학) =반포 A P T A동203호 (이하 김규진동문 제보)
- ▲장정남 (67행정) =영등포구 신길 3동건영 A P T 라동 305호
- ▲김광운 (67정의) =경기도 시흥군 군포읍 당리 재운주택 B동 101호

- ▲이병구 (67응생) =건영약품(株) (923) 2935
- 새로파악된동국인
- ▲廉相允 (64정의)성동구 성수 2가 24-14
- ▲盧海永 (66국문) =강남구청담동 삼익 A P T 9동 1102호 (545) 9710
- ▲趙丙鉉 (74법학) =충남 아산군 탑정면 호삼리 (0418) 3-0453
- ▲鄭植洙 (74무역) =강남구 방배동235 신반포 제 2지구 A P T 106동304호 (590) 7700 삼희관광(株) (864)3232-4
- ▲金京株 =성동구 자양동 650-43(446)1367
- ▲金圭益 =경기도 과천시 주공 A P T 504동 107호 (502)9878 (株)동우인터내셔널 (566)6882
- ▲金德中 =강남구 개포동 주공 A P T 506동 1003호 (554)2904 한국건일(株) (776)8011
- ▲金榮洙 =성동구 구의동 257-95 (447)2348 상업은행 국제부 (754)3920
- ▲金桓植 =성동구 흥익동112 (292) 5181 일성특수고무공업사비교 (807) 3636
- ▲朴文學 =강남구 대치동 은마 A P T 8동 212호 (556) 8875 신일산업(株) (273) 3300
- ▲朴善童 =강서구 내발산동 695 주공 A P T 14동 104호 (695) 9152. 한국공화용역(株) (662)2281
- ▲朴澤來 =부천시 송내동 동신고층 A P T 2동402호 (64)5093

다음호에 『六六東政會』 명단 계속

중 주소』하며 귀엽게군다. 우리나라 최초의 뮤지컬인 『애모의노래』에서 주인공을 맡은 것을 비롯, 탁월한 연기력을 과시해온李동문은 남이 싫어하는 역할 특히 악역에서 특보적인 위치를 굳혀왔으며 최근 인기 2년의 델린트협회 회장으로 피선되는 등 동국인으로서의 지력을 발휘하고 있다.

遞信部通信工事免許業体



世宇電子通信公社

中区 乙支路 4街 315-1 (무광빌딩510호)

代表電話 : 273-4048

直通電話 : 269-1144

代表 趙 椿 煥

(74경영)

營業種目

- 各種通信設備維持保守
- 各種通信機器製作 및 設置
- 電子式自動交換機 및 키- 폰設置
- FAX, TELEX, 인타폰, MDF設置





모교 체육부를 찾아서

"7년 東國人の 자랑," "대학 스포츠의 요람" 등 현란한 수식으로 대변되는 모교체육부.

동문들과 재학생들에게 東國의 긍지와 자부심을 스포츠를 통해 고양시켜온 체육부가 모교개교80주년과 '86아시아게임을 맞이하여,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각 선수들은 어떻게 훈련을 받고 있는가 하는 문제들은 우리 모두의 관심사가 아닐수 없다. 이런 이유로 본보에서는 체육부를 심층 취재함으로써 그중급증을 풀이해보기로 한다.

<편집자註> 체육부의 모든 일을 총지휘하고 있는 尹成澤(60·사학) 부장은 체육부의 장기적인 계획에 대해서 '모교기 동안 체육부 소속의 모든부를 상위권에 올려놓는다는 목표'에 모든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전제하면서 '동국80년 체육사의 일대 전환을 가져올수있는 기쁨을 다져 놓겠다'고 다짐했다.

체육부의 발전은 행정적인 뒤받침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급한대로 원활한 선수수급에 있다 하겠다. 아무리 많은 재원을 투자한다 하더라도 기분이 있는 선수가 부족하면 그것은 마치 밑빠진 독에 물붓기와 마찬가지로 지인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선수 스카우팅이 따로 체육발전의 지름길이라 할수있다. 이에 대해 尹부장은 '우수선수 스카우에 인전을 기하고 있다. 각 부감독 코치들이 선수 스카우를 위해 동원해주고 있는 덕분에 어느정도 소정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경쟁중이 있는 학교들 때문에 공식적으로 발표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조심스럽게 밝혔다.

훈련 선수들의 후생복지 및 관리에 있어서 李炳天(농학) 주임은 '전일합숙을 통해 단결력을 고취 시키고 있으며, 선수들이 편히 휴식을 취하고, 체력을 연마 할수 있도록 합숙소 시설확장과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고 있으며, 완벽한 선수 관리에 힘쓰고 있다'고 하며 동문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하고 있다.

86시즌이 끝난 상태는 아니지만 전반기 시즌 성적을 토대로 각부의 후반기에 예상되는 성적과 선수 수급현황등을 점검해 보면.

◇야 구

모교체육의 간판으로서 우리 동문들을 가장 많이 웃고 울린 정본인.

86전반기동안 열린 3개대회에서 모두 결승까지 진출하여 한번의 우승과 두번준우승을 차지하는 빛나는 성과를 거두어

큰 이변이 없었던 모교 야구부는 당분간 대화야구의 정상 자리를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농 구

대학정상의 전력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불운으로 합상경상일보 직전에서 부문을 삼켜야 했다. 그러나 지난해 추계연맹전에서 전승으로 우승을 마친뒤, 86시즌 춘계연맹전에서도 국민대에 아깝게 패해 준우승에 머물렀지만, 전력이 일취월장한 상태다.

모교와 동문들의 적극적인 후원에 힘입어 이번 추계연맹전에서는 우승을 목표로 훈련중에 있다.

이번 추계연맹전에는 농구 국가대표 선수들이 진진 출전하는 대회이므로 이 대회를 통해 우승을 함으로서 모교 농구부의 실력을 재확인 하는 기회가 될것으로 보인다.

지 않은 상태에 있다. 급년시즌만 하더라도 86·88 지정 육성대학대회에서 정성문(경협 3·그레프코밍형 미들급)을 비롯한 6명이 우승, 67건 국제전에서 김광수(경협 2·자유헤럴터급) 등 2명이 우승하는 등 실로 눈부신 성과를 거두어 펴고 있다.

모교에서 가장 오래되었을뿐 아니라, 우리나라 레스링계의 기

한에 특히 김영남동문은 레스링대표팀주장을 맡고 있을뿐 아니라 금메달이 유력시 되고 있다.

또한 이번에 졸업하는 선수 4명도 무난히 실업팀으로 스카우팅이 확실시되며 유망부 5명정도를 스카우하여 88올림픽 출전 선수로 키울 예정으로 있다.



▲대학야구의 정상, 모교야구팀의 시합광경.

등을 이루는 수 많은 대표선수들을 배출하여 모교의 이름을 드높이기도 했다. 우리들이 알고 있는 선수만 하더라도 張昌晄(65법학), 金和經(73무역), 金鍾義(83체교) 동문등 수도 없

◇복싱

아마추어복싱의 정상에서 일보 후퇴한 느낌을 감출수는 없지마는 그런대로 옛날의 영광을 이어오고있는 형편이다. 蕭忠載(83경협), 黃植淳(80경협), 金貞喆(80경협) 동문들의 화려했던 시절을 金光善(체교 4·'86아시아게임 플라이급) 선수들이 재현하려 애쓰고 있는 실정.

급년들이 이렇다할 성적은 거두지 못했지만 하계전지 훈련을 통해 후반시즌에는 소정의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레슬링과 마찬가지로 5명정도의 신인들을 스카우하여 88올림픽대표로 키울 예정이다. 오늘날의 모교체육을 뒤돌아보면 대학스포츠의 후진성을 면치 못했던 지난날에 비해 격세지감을 느끼지 않을수 없다.

그러나 아직 멀었다. 실질적인 대학스포츠의 정상임을 확인 하기위해서는 선수, 학교, 관계자, 동문들이 혼연일체되어야 하며, 선수관리의 과학화등을 비롯하여 제반문제 해결에 노력하여야 할것이다.

김영남·김수환·김광선 아시아게임 "금기대," 東國80년 體育史의 일대 전환기 마련 동문들의 적극적이고 현실성있는 지원요망

들었다. 후반기에 예상되는 성적은 두말할것없이 절대적 석권이 목표. 백인호·박철우·이동식을 걸출한 대학야구의 간판스타 8명이 졸업함으로써, 내년시즌에 대해 약간의 전력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보이나, 박준대, 이강철 등이 버티고, 고교야구의 스타플레이어들

더만 모교 장신 센터 이호근이 부상중이 있는데 추계 리그에는 출전이 어려울실정.

한편 徐大成(경협 4·195cm·대학선반군센터) 이 삼성전자로 가는것을 비롯하여 졸업생전원이 실업팀으로 스카우팅 전망. 현재 진행중인 스카우 대상자는 5명정도며 장인과 슈터 위주로 선발할 예정이고, 타대학의 반대를 가장 받고 있는 실정에 있으나, 4명이 확보된 상태이며 나머지 1명과는 교섭중에 있다.

이 많은 스마들의 산실이었던 것이다.

후반기에도 전반기와 마찬가지로 우수한 성적이 기대되는 데 특히 대학선수권에서는 부족한 선수에 불구하고 전종목 입상에 종합우승을 목표로 강훈련중이다.

한편 이번 아시아게임에도 김영남(84체교 그레프코밍형 웰터급 LA 4급) 김수환(84체교·자유형 라이트급) 동문들이 출전



▲東國의 결집된 힘

또한 東國에 있어서의 체육부 역할에 대해서도 '東國인 전체의 결속과 모교 홍보에 일익을 담당해왔으며, 스포츠를 통해 모교체육의 활성화를 꾀하는데 이바지한것으로 안다'고 나름대로의 소신을 피력했다.

아울러 모교체육부의 후반기에 예상되는 성적과, 아시아게임 출전 선수 성적에 대해서 尹부장은 '선승 중목에서 선반기 보다 나은 성적을 거둘것에 예상되고 있고, 아시아게임권투출전 선수인 金光善(체교 4·플라이급) 선수의 금메달을 확신하고 있다'고 예상했다.

을 포지션별로 대거 스카우팅 예정으로 있어 별걱정은 없을 편이다.

현재 진행중인 스카우 대상자는 13명으로, 투수·타격에 주안점 두고, 선발할 예정이고, 졸업예정 선수들은 대개가 프로 진출을 희망하고 있는데 모두가 원할하게 진출할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혹독한 동계훈련을 통해 매년 괴물(?)이 배출되고 있는게 모교 야구의 특징인데, 내년 시즌에는 김대열(포수) 유재호(유격수) 등이 주목되는 신인선수. 이러한 사정으로 미루어볼때

◇축 구

지난날 화려했던 시절에 비해, 다소 후퇴한 느낌을 배제할수없다.

李容濟(82도형·신안은행·실업선발) 등과 같은 스타의 부재, 추진회의 미온적인 지원상태에서 상위권의 성적을 기대할수 없는 실정에 있다. 그러나 이런 악조건을 꿰뚫어본 훈련으로 극복하기위해 감독이합전선수들이 지난 30일부터 주문전에서 하계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후반기 목표는 추계연맹전 4강이 목표.

부진한 전적으로 인해 韓綠洙(경체 4·주장) 등을 비롯한 4명의 졸업생의 거취가 아직 불분명한 상태에 있다.

훈련 선수 스카우에 있어서는 포지션별로 13~14명정도 모교 스카우 할예정으로 있는데, A클래스 선수가 8~9명이나되어 내년부터 좋은 성적이 기대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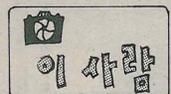
◇레슬링

화려한 성적을 거두어 들어고 있으면서도, 비긴이 개인종목이라는 이유때문에 잘 알려지

수위 高來鎮씨

'65년 겨울 본관수위로 등극에 빛났던 시절을 들여 놓았지요, 그렇지만 하더라도 치안상태가 좋지않아 근무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어요'

모교 본관을 21년째 지키고있는 高來鎮(51 본관수위)은 그렇시를 이렇게 회상한다.



이 사람

후분수위로 잠시 근무한지도 잊지않은, 출근 본관을 떠나지 않은 高來鎮은 급년 개교기념일날엔 20년장기근속포장을 받기도한 동국의 산중입니다. '지난날 보다 학생들의 수준은 전반적으로 높아졌지만, 단결력과 인내심은 그전만 못한것같다'며 아쉬워 하면서도 건 강하게 생활하는 학생들



을 볼때면 보람을 느낀다'고...

'[본보]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동국의 수문장이 라는 긍지를 잃어본적이 없다. 더군다나 이번의 대가 신승들이 더듬어 입에 자부심을 느낀다'는 그의 표정속에서, 동국과 함께 무럭무럭 호흡해온 동국정신을 찾을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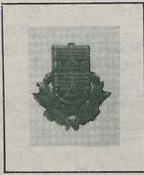
부인과 3남1녀를 거느린 가정으로 굳건히 살아가는 평범한 우리동국의 가족임을 강조하고 있다.

<震>

「惠專」교표를 찾습니다.

지난호(6월30일 자 제112호)에 게재하였던 「惠專 교표를 찾습니다」 제하의 기사를 보고 많은 동문들이 본회의로 연락을 보내왔다.

경북 예천 蓮邦寺 주지모이는 權啓漢(41회전)등



문은 자신이 직접 제작하여 학교 공모에 당선되었던 내력과 함께 앨범에 실린 교표(사진)를 올려 보내왔다. 美國 샌프란시스코 동문회 前회장인 金厚吉(41회전) 동문은 본회로 사진을 보내

모표 각 1점씩을 비롯 「朝鮮宗教史」등 교사자료를 기증한 것이 있음을 알려와 확인을 해본 결과 모교 박물관에 소장돼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혜문회 회장인 金定基(48회전) 동문은 혜문회수첩에 인쇄된교표의 문양을 가지고 본회로 찾아오는 성의를 보이는데 많은 동문들이 관심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위 사진과 같은 모표와 함께 예비문형의 교표를 소장하고 계신 동문께서는 본회 사무국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다라니經」완전 復元

선명도 차이까지 再現, 영인본 제작공개

세계 최고의 인쇄물인 신라의 「無垢淨光大陀羅尼經」이 지난 66년 경주불국사 석가탑 2층 사리공에서 발견된지 20년

만에 완벽하게 복원되었다. 모교의 개교80주년 기념사업의 하나로 이루어진 이번 다라니경 복원사업은 이 다라니

경이 8세기 신라의 목판인쇄술의 극치를 보여주는 정교하고 아름다운 字體와 인쇄·제본술을 집약한 결건이었으나, 완전히 부식된채로 발견되어 복원·전시되지 못하고 국립중앙박물관 보존창고에 보관되어오던 것을 완벽하게 복원, 영인본으로 만들어 일반에게 공개하였다.

다라니경 복원위원회(위원장 임자=金鶴鎬 교목대학원장)는 다라니경이 처음발견된 당시 이 두루마리 경전의 각행들을 실패크기로 사진을 찍었던 趙明基원장, 자비閣 문화재전문위원, 문화재관리국등의 필름을중심한, 편지해서 복원에 성공했다. 복원된 다라니경은 실물의 크기는 물론 종이의 이음새, 行間의 간격, 부식되어 멸실된 부분까지도 완전히 재현했음을받아 나라 부분에 따라 선명도의 차이가 생기는 것이 완전히 재현했다.



▲20년만에 완전復元된「無垢淨光大陀羅尼經」(사진)과 신라의 良志스님이 직접조각한 불상과탑이 새겨져있는塚(사진下)

良志스님유물발굴 경주캠퍼스박물관

모교의 경주캠퍼스 박물관에서는 학교뒷산인 金丈리 銅文寺에서 신라 선덕여왕대의 유물인 승려화가 良志스님이 직접조각한 불상과 탑이 있는 塚 1백90점을 비롯 동종등 금강역사상, 불상5점등 2백여점의 유물을 발굴하였다.

발굴단장 張忠植교수는 삼국유사에 『석장사에 良志가 三千佛塔을 봉안했다』는 기록이 나오는데 이번 발견된 塚의영면 또는 표면에 정교한 불상·탑의 조각이 새겨져있어 이塚으로 전함을 만들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日本학술조사 일본학 연구소서

모교의 일본학연구소(소장=金恩燮교수)에서는 5개년계획으로 일본측의 우리 문화재에 대한 정밀학술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모교의 일본학연구소(소장=金恩燮교수)를 단장으로 張漢基박물관장, 禹興奎연구원으로 구성된 1차년도 九州지방 조사단은 지난16일 현지로 떠나 약 한달간의 조사활동을 통해 금소장은 문헌관계를, 張관장은 민속관계, 禹연구원은 陶工관계를 중점적으로 조사하게 된다.

또한 이번 학술조사에는 黃壽永전총장, 南都泳부총장, 張忠植교수, 文明大교수등을 비롯 한 토사학자·문공부기관 전문가등이 대거 참여한다.

80周기념시화전, 한국문학박 東國文學발전위한 기금 마련

모교에 한국문학연구소(소장=金起東교수)에서는 개교80주년을 맞아 동국문학학회(회장=姜敏·59국문)와 공동으로 기념 시화전을 개최한다.

오는9월 3일부터 6일까지 4일간 시내 관공동 백악미술관에서 열리게 되는 이번 시화전에는 한용운, 서정주, 조지

훈등을 비롯 현재 활동중인 동문작가들의 작품 50여점을 전시하게 되는데 그림은 모교교육대학원 미술교육과에서 협찬하였다.

한편 본회에서도 공식후원하는 이번 시화전의 작품판매기금은 모두 동국문학 발전을위한 기금으로 적립하게 된다.

慶州남산 학술조사

신라문화研, 원형복원 연구

모교 경주캠퍼스의 신라문화 연구소에서는 慶州 남산(일명 금암산) 발굴 복원을 위한 학술조사를 실시한다.

세계적인 노천박물관인 경주남산의 복원사업은 문공부·건설부·경상북도·경주시등이 공동참여, 정부사업으로 추진하는 장기계획으로 기초학술조사·발굴조사를 거쳐 관광자원화를결한 본격적인 복원사업을 실시하게 된다.

경주시의 용역을 받아 3개년계획으로 추진되는 이번 기초학술조사는 1차로 내년5월말까지 남산의 40개 계곡에산재있는70여점의 불상들을집중조사, 실측도와 평면도를 작성하고 원형 복원방안을 제시하게 된다.

경주남산 유적에 대한 최초의 본격적인종합 고고학술조사이기

東友會報 창간10주년 기념 광고기획 4 『서로 돕는 同門社會』

“실속있고 품위있는 선물을 원하십니까?”

新羅 명과

소외자 상담실 863-4040

대표이사 홍 평 우 (70경영)

세무사 鄭 大 鎭 (63법학)

稅務상담 · 기장대리
심사 · 심판 · 청구

전화 856-6182 854-5618
856-4924 853-4635

세무사 정대진사무소

에 대한 모든것

(783) 2707 · (782) 9721-2

- * 시내연수 - 3시간내 자선감부여
- * 렌트카 - 각종지랑 구비
- * 대리운전 - 24시간 대기
- * 보험 · 정비 · 기사알선

“전화 한 통화로...”

현대인이 선택하는
정상의 승용차!
“L Car” 판매개시

현대생산차종: 엑셀
프레스토
CXL
소나타

2,000CC
2,400CC
3,000CC

TEL 274-3103~7
아간 914-6584

판매과장: 柳在善 (70경영 · ROTC 8기)

자동차 서비스라인 회원모집

(株) 南陽企劃

代表 李 鐘 蘭

(경원 여학생회장 · 총무)

이색동문 採訪

현덕영 동문



아역 연기자를 키우며 演技에 대한 꿈을 실현시키고 있는 현덕영 (71년영·신라방송예술원 대표) 동문.

『재학시부터 간직해온 연기에 대한 꿈을 이제는 후진양성에 쏟고있는 셈이죠』라고 말하는 현덕영은 당장 배우나 탤

극단「산하」서 연극으로 활약해온 정통과 신라 방송예술원설립... 아역연기자 양성

런트가 되는것으로 알고 찾아오는 연기자 지방생들이 이곳에서의 교육을 통해 다듬어지고 세련된 연기자가되어 방송등에 출연하는 모습을볼때 『정말 보람과 희열을 느낀다』고 한다.

71년 모교 연극영화학과를 졸업하며 ROTC 9기로 입대, 73년 전역후 바로 극단「산하」에 들어가 주로 연극 무대에서 활약해 온 현덕영이 아역연기자 양성에 적극적으로 달려들기 시작한건 83년 현재의 「신라방송예술원」을 설립하면서 부터.

『방송극등에서는 성인연기자들만 확보하고 있을뿐 아역연기자를 양성하는 곳이 없었어 요. 아역연기자가 필요하기는하



▲연기에 열중하고있는 아역배우들.

주요. 또 연기자 지방생은 많으네 이들에게 체계적으로 연

기수업을 시킬만한 곳도 없었

『그렇게해서 자신이 그 역할을 맡기로 작정하고 「신라방송예술원」을 설립하게 되었다. 현재, 영화 「절소름」과 롯데 CF 전속모델로 활약하고 있는 이상아랑, MBC TV 「호랑이선생님」 「풀잎마디술」 등에 출연하고있는 박준수등 이곳을 통해 배출된 아역연기자의 수는 줄잡아 2백여명.

최근 이와 유사한 연기자들

양성하는 사설학원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으나 학풍과 같이 정통 연기인이 운영하는 곳은 「신라방송예술원」이 유일하다.

이러한 현덕영의 노력이 알려졌음인지 지난해 원생모집에서는 수많은 응시자들이 몰려 20대 1의 경쟁률을 보이기도.

현재 연기자의 꿈을 불태우며 연기수업에 열중하고 있는 60여명의 원생들과 대학 연역과 진학한 학생들 원생들의 지도를 받고있는 박재호 (연영과 23회) 경진호 (연영과 24회) 동문 등 두교사외에도 현덕영의 후진양성에 대한 꿈을 알게된 이성재 (4년영·발전트렌트회회장) 이진재, 이덕화, 임예진등 동문 연기자들이 떠나는데 이곳에 들려 현역연기자로서 생생한 자기체감을 들려주고 주 2~3회 특별지도도 해주는데 현덕영을 돕고있다.

『연기생활의 화려한 모습만보고 이곳을 찾는 부모나 지방생들이 적잖아요. 하지만 연기란 자질과 함께 피나는 노력이 바탕이 되었을때 대성할수 있는 것』이라며 「그만한 각오와 자질을 가진 사람이라면 언제든지 환영하며, 특히 동문 자녀들에게는 특별을 줄수도 있다』는 현덕영은 현재 연극영화학과 동문회총무로도 활약중. 연락처 (784) 3608·3610. <續>

회비... 1년에 1만원

"김기났는 약(?) 좀 주세요"

동창회 모교떠나틴들

○...동창회 사무국이 13년 동안이나 정들었던 모교를 떠나던 날 하늘에선 연수같은 비가 내려 아쉬움을 더했는데...

그땋속에 이삿짐을 옮기느라 사무국 직원 모두가 물에 빠진 생쥐 꼴이 되었어 두 장차 同窓會館을 위한 첫발을 내딛는다는 생각으로 힘은 줄도 모르고 이사를 마친 것까지는 좋았으나, 다음날부터 배어난 여름감기들이 고생이 많이 아니라고.

동창회관을 위해 걸린 김기나만큼 동문 여러분의 선원이 모여 會館이 건립될 때까지 노력할 것 같다고 하니 동동동동 동문제위께 부탁 드립니다. 「김기났는 약(?) 좀 보내주세요」

『받아도 읽지마세요』

○...도서출판「고려원」을 경영하고있는 김낙태 (81원·본회 상무이사) 동문에게 요즈음 함의전화가 걸려오고 있

다는데...

내용인즉 최근 김동문이우편으로 동문들에게 보낸 「소설 英雄門」 1부 1권을 받아본 동문들이 책을 읽고 나서 『책이 재미되어 2부 6권까지 12권이되는 책을 모두 읽느라 사흘밤을 새웠더며,



東동국대同窓會活動委員會

왜 아무일도 못하게 그런 책을 보내느냐는 함의전화(?) 가 걸려오고 있다는것.

그런 함의전화를받은 김동문은 「이찌 받아보지 못한 동문께는 곧 우송되어 갈 것이나 책을 받아도 읽지

마시라」는 이색적인 부탁을 하기도.

코끼리 앞세워...

○...7만동문 모두가 東國과 東國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생활하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 없는 사실.

천호동에 자리잡고 있는 유니버스 백화점은 앞뜰에 위치한 대형코끼리상으로 인해 「코끼리백화점」으로 더 알려져 있는데...

유니버스백화점을 경영하고 있는 吳昌均 (61사학·본회상무이사) 동문은 오는 8월 20일 유니버스 호텔개관을 앞두고 「모교의 상징수인 코끼리를 앞세워서인지 하는 한마디. 이처럼 모교의 긍지를 높이고 있는 동문들이 수두룩한 우리 東國의 앞날은 밝을 수 밖에 없지않겠습니까요.

本동동동 동문제위께 고하노니 「뜻동분과같이 함상東國과함께 생활하는 東國인이 됩시다」

"생활속에서 코끼리의 응맹을"

사무국을 찾아주신 동문들

玄平孝 (52국문·前세주대학교 총장) 金定基 (48회전·해문회 회장) 姜仁주 (48회전·총무) 申興來 (85국문·본회전총무) 尹成澤 (사학·母校체육부장) 裴基烈 (80체교·母校체육코치) 羅彦杓 (59경제·母校학생부처장) 兩基一 (72경제·본회감사) 徐承三 (78경제·주) 녹십자 서울사무소장) 金榮一 (63경제·성북동우회사무국장) 金容喆 (61국문·母校신문사주간) 申寬浩 (73경제·母校 신문사 편집국장) 이민영 (76경제·해태제과 예산관리실) 이종진 (78경제·고려화학(주) 영업부) 김억걸 (71농학·삼화상사) 김기주 (71상학·동양화재보험 (주) 영업과장) 차수현 (79경일·백안산업(주) 대표이사) 강원호 (79경일·(주) YKK 상

무이사) 白正基 (64경영·삼일실유대표) 조준환 (74경영·세우정자동신공사(株) 대표理事) 서웅이 (72경영·세진사(代表) 박문교 (77국문) 서정희 (65상학·삼일문화사(代表) 이은성 (86건축) 김성열 (86토목·母校토목과 조교) 박영규 (84경제·이인) 백광렬 (84농경·전기신문기자) 배영인 (85사계) 강필순 (86가고·아이스크림) 鄭賢弼 (74사학·상무아구감독) 정희성 (83국문·월간비용생활기자) 장영우 (84국문·신광대학교사) 馬慶宇 (53국문·파주여자중·종합고교교감) 임재중 (85건축·母校대학원재학중) 윤재중 (85국문·/) 김윤길 (86국문·모교기획실) 李彦杓 (75경일·코리아컴퍼리(株) 대표理事)

대우자동차 (株)

“멋과 개성이 함께 달린다”

- 맵시-나
- 로얄XQ
- 프린스 1.5
- 로얄 프린스
- 로얄 싸롱
- 싸롱 슈퍼

월드카 (로얄) 판매개시

* 중고차 증개

판매대리: 崔鉉石 (74년영)

TEL. 544-1928-1128 (야간) 487-7539

강남구 논현동 88-7 (고려B/D 1층)

신용·진절·봉사

대한가축원

영진가축원

외국 수입견

교한사육상담

각종 견구 취급

애완견분양

대표 서영진 (61경제)

중구 충무로 5가 73-2

266-0731·267-0195

265-0086

꽃배달

FLOWERS BY PHONE

777-5040

전화 한 통화로 축하의 기쁨과 만족의 꽃이 됩니다.

뽕보의꽃방

중구 소공동 1번지 롯데호텔 입구

대표: 이금함 (77가교)

● 금은·보석·시계

三正堂

779-3360

서울·중구 명동지하상가 마6호

代表 金基俊 61경제

東國人是 東國인이 경영하는 나라항공으로

가성 저렴한 항공요금 (후불도 가능)

나라航空

대표이사 安重五 (65영문)

776-7895-7

752-4396-7

삼구빌딩1103호 (조선호텔출문 맞은편)



☎ 영업부: (739) 7741-3 편집부: (730) 8082-4



金庸大河歷史長篇小說

小說英雄門

*金一江
음김

제1부 蒙古의 별 전6권 完刊!
제2부 英雄의 별 전6권 完刊!
기상천외한 사건들과 미려적인 재미!
전세계 수천만 독자를 열광시킨 소설!

氣를 펴라! 大人이 되라! 용지를 품은
大自由人으로 거침없이 人間世를 살아가라!

제1부 蒙古의 별-야망과 복수, 信義와 반목의 대과노라마 宋의 유민으로 몽고초원에서 자란 팽정, 그의 약혼녀이며 징기스칸의 외딸인 화쟁공주, 金國의 왕자 완안강, 長春眞人 구처기, 몽고의 작은 영웅 철별, 신비의 섬 도화도주 황약사, 그의 딸 황용, 그리고 슬한 영웅 호결들의 출현!

제2부 英雄의 별-인간 본능과 애정의 대서사시 광정·황용의 딸 광부, 양강의 아들과 그의 연인 소용녀, 몽고 승상의 두 아들 아올진 아올제, 티벳의 라마승 금문법왕 등 파란 만장한 인물들이 모순에 찬 세상과 인연에 반항하면서 흥미진진하게 펼쳐나가는 情을 테마로 한 대서사시!



● 제1부 전6권/제2부 전6권/각330면 내외/각권 값 3,000원 ● 날권판매 단채주문 ☎ 739-7741-3/☎ 전국서점에 있습니다.

盧世學의 교과서, 政治學의 보감, 企業經營의 지침서!

小說 孫子兵法

● 전 4권/각 300면 내외/각권 값 2,800원/날권판매 ◆서점에 있습니다.

小說 孫子兵法에 이은 또 다른 力作 小說楚漢誌!

小說 楚漢誌

● 전 5권/각 300면 내외/각권 값 2,800원/날권판매 ◆서점에 있습니다.

인류사상 最大의 인생홍망극, 小說三國志!

小說 三國志

● 전 6권/각 330면 내외/각권 값 2,800원/날권판매 ◆서점에 있습니다.



WELCOME TO OLYMPHIC TOWN

유니버스 호텔

마음깊이 느껴지는 극진한 精誠으로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86아시안게임' '88올림픽이 개최되는
서울의 새로운 문화와 사교의 중심지 강동지역에
국제수준의 품격높은 서어비스와 각종 부대시설을 갖춘
유니버스 호텔이 여러분의 성원속에
문을 엽니다.

최고의 시설, 최상의 서어비스

올림픽타운에서 5분거리에 위치한 유니버스 관광호텔은 사우나, 헬스크럽, 품격높은 식당가와 안락한 객실분위기, 대소연회장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갖추고 국제규모의 호텔로서 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레저생활의 중심지가 될것입니다.

편리하고 다양한 부대시설

- | | |
|---------------------|-------------------------|
| 1. 커피숍 (East River) | 6. 부페식당 (River View) |
| 2. 한식당 (천진) | 7. 스카이라운지 바 (Sky Belle) |
| 3. 양식당 (Bybylon) | 8. 사우나 및 헬스크럽 |
| 4. 일식당 (천진) | 9. 대소연회장 (30~300수용) |
| 5. 카페 (Bester) | 10. 나이트클럽 |



즐거운쇼핑. 아늑한 휴식처



유니버스 백화점 유니버스 호텔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동57-3 번지
대표전화 : 485-3121

대표이사 회장 **吳 昌 均** (61史学)